



##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올바른 특허출원 장려 -
- 특허출원시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허위사실 점검, 시험자료 검증 등) 제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9.(화)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①인공지능 단순 활용 안 되고,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인공지능 발명 유형별로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 안내>

인공지능 발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이 있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메모리 등)와 결합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는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통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진보성 요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받을 수 없다.

### <④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명의 내용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보안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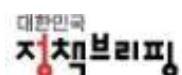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 등이 외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 전에 입력자료가 외부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0~12일,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신진섭 (042-481-8321)
	특허제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길남 (042-481-5398)



#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2026.06



① 기본 원칙 .....	3
② AI 발명 유형별 유의사항 .....	4
AI 자체에 대한 발명 .....	5
AI 기술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	6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	8
③ 기타 유의사항 .....	9

(실제사례1<sup>각색</sup>)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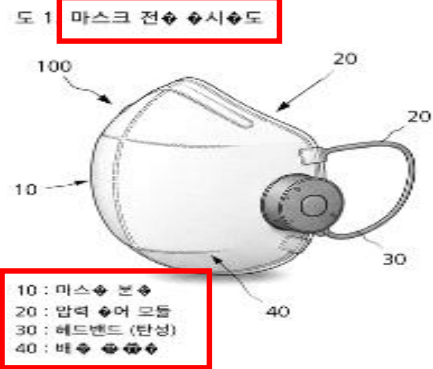
ChatGPT의 말:~

좋습니다 박사님. Part 2 즉시 투입합니다.~

🔥 Patent Part 2 — 청구항(Claims).~

【청구항 1】 (가장 넓은 독립항)~

안면에 밀착되는 마스크 본체(10), 및 마스크 본체의 양측에 연결되어 귀에 걸 수 있도록 형성된 이어밴드(30)를 포함하는 안면밀착 마스크.~



▶ 인공지능 활용시 발생하는 대화 내용 또는 결과물의 왜곡된 글자가 그대로 포함

(실제사례2<sup>각색</sup>)

1명의 개인 출원인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고난도 발명을 하루에 수십 건 출원한 경우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1. 딥러닝 모델 경량화를 위한 신경망 가지치기 장치 2.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콘텐츠 자율생성 서버 ...	인공지능
1. 양자점 기반의 고효율 태양전지 구조 및 그 제조 방법 2. 양자얽힘 상태의 광자이용 고보안성 양자 키 분배 통신 시스템 ...	양자 컴퓨팅
1.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미세조류의 유전자 재조합 방법 2. 바이오센서 기반 대사경로 최적화를 통한 합성 미생물 균주 제조방법 ...	합성 생물학

(가상사례)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허위 시험결과를 제출한 경우

